4

구충

기생충계의 드라큘라

기생충과 빈혈

1880년, 이탈리아에서 15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터널을 뚫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첫 환자가 나온 것은 그 해 2월이었다.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 한 명이 쓰러졌는데, 검사를 해 보니 빈혈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병원 측에서는 치료를 하려고 애썼지만, 아쉽게도 그 인부는 목숨을 잃는다.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부검을 한 의사는 깜짝 놀랐다. 그 인부의 소장에서 기생충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대충 헤아려도 1,500마리는 넘었다. 그 당시엔 기생충과 빈혈의 관계에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인부가 셋이나 더 나오자 얘기가 달라진다. 혹시나 해서 시행한 대변 검사에서 기생충의 알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게다가 그 인부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지금 터널 공사를 하는 인부들 중에 저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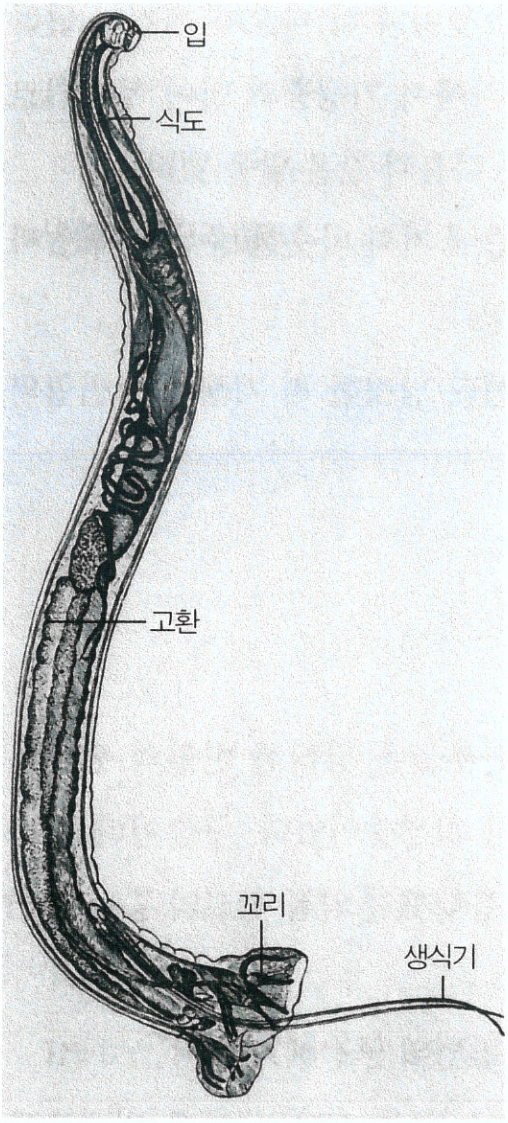
의사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1센티 남짓한 저 기생충이 빈혈의 원인일지도 모르겠다고.

끝이 구부러진 구충

당시 의사들의 추측대로 터널 인부들을 강타한 빈혈의 원인은 '구충(hookworm)'이란 이름을 가진 기생충이었다. 구충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을 테니, 과거에 유행했던 약품 광고의 홍보 문구를 떠올려 보자.

"회충, 편충, 요충, 십이지장충에 광범위 구충제 ○○○!"

여기서 말하는 십이지장충이 바로 '구충'으로, 구충은 기생충이 목을 앞쪽으로 구부리고 있어서 전체적인 모양이 '갈고리'처럼 보인다는 것에 착안한 이름이다. 한두 마리가 자느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충체가 다 그런 모습을 취하다 보니 아예 이름으로까지 승화된 것이다. 그런데 구충을 '십이지장충'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1838년 두비니(Angelo Dubini)라는 이탈리아 의사가 한 여인을 부검하다가 이 기생충을 발견했는데, 공교롭게도 발



구충

견된 장소가 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십이지장이었다. 원래 기생충은 영양분이 가장 많은 작은창자, 그중에서도 가운데 위치한 공장(빈창자)을 선호하기 마련이며, 구충의 주요 기생 부위 역시 공장이다. 그런데 구충의 수가 많거나 다른 기생충들이 공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십이지장에도 구충이 기생할 수 있는데, 그걸 몰랐던 두비니는 이 기생충에게 '십이지장충'이란 이름을 붙였다(십이지장이 영어로 duodenum인지라 학명은 Ancylostoma duodenale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한글 이름을 붙일 때 학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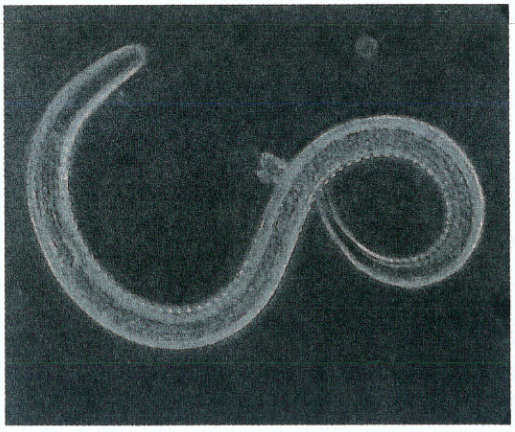
"주로 사는 곳이 공장인데 십이지장충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지만, 외국에서 잘 쓰는 이름을 아예 외면할 수는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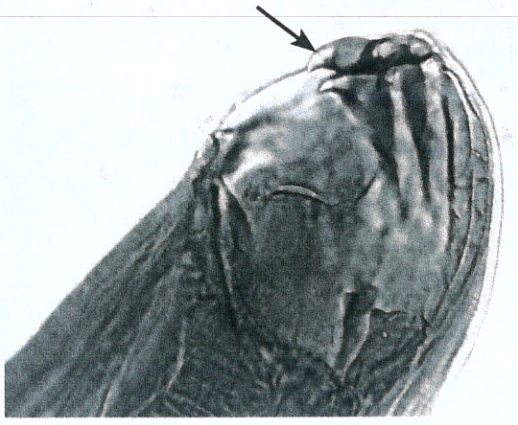
이럴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기생충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

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결국 이 기생충의 한국 이름은 '두비니구충'이 됐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점 이외에도 구충은 특이한 점이 두 가지 더 있으니, 하나는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에 두 쌍의 치아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기생충을 봤지만 호랑이에 필적할 정도로 멋진 치아를 가진 기생충은 구충이 유일하다.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수컷의 아랫부분에 치마 비슷한 구조물이 있다는 점이다. 『기생충 열전』에서 밝힌 것처럼 기생충은 수컷의 생식기가 충체 맨 아래쪽에 있고, 암컷은 몸 중간쯤에 생식기가 위치한다. 둘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 이를 위해 수컷은 끝 부분을 낚싯바늘 모양으로 휘어지게 만듦으로써 교접할 때 암컷을 붙들어 맬 수 있었다. 그런데 구충 수컷은 끝이 구부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암컷을 붙잡을까? 답은 '치마를 입는다'였다. 끝 부분이 치마처럼 넓



구충의 유충



구충의 이빨